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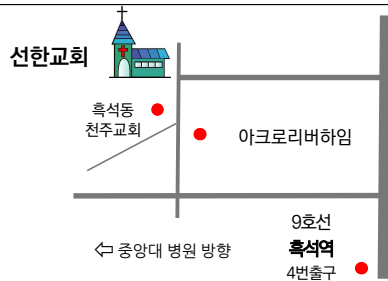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협력 선교사	강 성 규 (러시아)
	교 육 목 사 권 인 혁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한 배 선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목사)
	협력전도사 오 호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목사)
은 퇴 장 로	김 대 희, 박 희 태		주안예교회 (이정필목사)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가슴뛰는교회 (원종선목사)
	조 윤 익, 고 상 돈	관 리 장 로	손 석 규
	박 영 근, 조 계 승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표 어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행 18:10)

I Have Many People in this city

실 천 사 항 지역봉사 전도 / 기도 선교사의 삶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고린도전서 12:4-6)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19장 (통일찬송가 44장)
	교 독 문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찬 양 과 경 배		495장 (통일찬송가 271장)
	예 배 기 도		조운익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사도행전 17장 1~18절
	설	교	제2차 선교여행4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류은영 방성자 배미자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선한 능력으로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주일 오후	오후 3:0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찬	양	JOY AND			
	대 표	기 도	방성자 집사			
	말	씀	은사 세미나 (뉴송 교회)			
	광 고	및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진리와 두려움의 문제 (렘 38장 1~28절)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은 사 세 미 나	오늘 오후예배는 은사세미나로 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의 참여하시는 은사세미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 교사, 셀리더는 필수 참석.)		
2. 해 외 단 기 선 교	7월29일(월)~8월3일(토) 일정으로 캄보디아 단기선교가 있습니다. 단기선교 대원으로 헌신하실 분들은 5월 26일(주일)까지 이소영 집사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전 교 인 수 련 회	전교인 수련회가 8월 4일(주일)~6일(화) 일정으로 양평에 위치한 Kobaco 연수원에서 진행됩니다.		

5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5월 5일		기독교변증 5강			임춘배 목사	
5월 12일		체육대회			다함께	
5월 19일		은사세미나			뉴송교회	
5월 26일		기독교변증 6강			임춘배 목사	
2019년 성경강론 범위						
5/19	5/20	5/21	5/22	5/23	5/24	5/25
	시편 130편	시편 131편	시편 132편	시편 133편	시편 134편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은사를 주셨음을 신뢰하고 감사과 사모함으로 은사를 발견하기를		
	주신 은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를		
	사랑 안에서 은사로 일할 수 있기를		

[가정예배] 삶의 우선순위

찬송 : ‘복의 근원 강림하사’ 28장(통 28)
본문 : 창세기 26장 25절
말씀 :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민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을 아버지로 둔 이삭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당연히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뤄 놓은 삶의 업적과 축복을 이어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유산이 ‘우물’이었습니다. 고대 유목민들에게 우물의 의미는 실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생존 그 자체였고 가족들 및 함께하는 이들을 먹여 살리는 원천이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의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보물지도 같은 것이었지요.

그런데 이 우물들을 하나씩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남들은 우물 하나 파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 팠다고 해서 물이 다 나오는 것도 아닌데 이삭은 너무 쉽게 아버지가 놓았던 우물을 통해 먹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시기한 이들이 우물을 빼앗은 것입니다. 수많은 우물을 빼앗기고 이삭이 최종적으로 간 곳은 바로 ‘브엘세바’입니다. 창세기 21장에 보면 브엘세바에는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암양 새끼 일곱을 주고 이 우물이 아브라함의 것이라는 증거가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브엘세바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이전에 했던 대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어디인지를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삭은 더 이상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삭은 먼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본문에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라는 표현은 예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는 장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야 우물을 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우물은 아버지가 팠던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 32절을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라고 분명히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진정한 영적 독립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함에 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에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부모의 유산 상속에 전전긍긍하며 인생을 망친 탕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 영적으로 독립하는 이삭의 이야기를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오히려 이삭을 괴롭히던 아비멜렉과 군대장관이 이삭을 찾아와 용서를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28~29절) 더 이상 이삭은 아버지의 우물을 파먹고 사는 사람이 아닌 독립된 하나님의 용사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배를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현명한 일입니다. 그 인생에 우물이 터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제2차 선교여행4 (행 17:1-18)
서론	바울과 실라는 마케도니아 지방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본론	1. 복음을 전한 지역 (1) 데살로니가(1):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함(야손의 집) (2) 베뢰아(10):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 (3) 아덴(16): 철학자들과 쟁론.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심 2. 교훈 (1)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씨를 뿌리자. (2) 말씀에 대한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을 갖자. (3) 우상과 거짓에 대한 의로운 분노를 품고 진리를 증거하자.
결론	우리를 구원할수 있는 유일한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히 증거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조운익 장로	고상돈 장로
헌 금 위 원	류은영 방성자 배미자	류은영 방성자 배미자
오후예배 기도	방성자 집사	오세일 권사

매일 성경 강독		여호와 도움을 기다림	날짜 : 5월 20일
찬양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송가 455장 / 통일 찬송가 507장)		
통독	시편 130편		
본문 내용	저자 미상인 본시는 유명한 참회시들 중의 하나이다. 시인이 말하는 참회는 개인적인 죄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에 대한 것이다. 그러한 사실을 알고자 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 내용도 어떤 죄에 빠졌던 저자의 참회하는 심정으로 인하여 어두운 면이 있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내어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있다(1-4절). 나아가 자신의 죄를 내어 놓음으로 인해 죄 사함을 확신하는 소망으로 끝맺고 있다(5-8절).		
생각해보기			
1	참회 중의 기다림 (1) 본시는 그 인자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며 그의 사유하심을 간절히 부르짖는 ‘참회시’로, 개인적 보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공동체적 범죄에 대한 참회의 성격을 가짐 (2) 1,2절은 고통에서의 구원을 갈망하는 시인의 절규하는 듯한 간구를 언급하고 이어 3,4절에서는 시인이 하나님께 호소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과 그에 대비되는 하나님의 자비를 언급함. (3) 5,6절은 하나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시인의 애틋한 열망을 아침을 기다리는 파수꾼에 비유하여 묘사하고 7,8절은 이스라엘에 대한 죄 사함과 회복을 확신하는 시인의 신앙고백을 언급함 (4) 모든 사유하심의 은혜가 하나님께만 있음을 인식하고 우리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수 있으며 또한 모든 악으로부터 벗어나 승리할 수 있다는 참된 구원관을 가져야한다.		
핵심 단어	1절. 깊은 데서.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뜻한다. 여기서는 시인이 깊은 절망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3절. 감찰하실진대. 심판을 위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행위를 선악간에 살피심을 의미한다. 5절. 바라노도다. 상대방의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심판 경고에 담긴 하나님 마음”
찬양과 기도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 어저께나 오늘이나 (135장/통 133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찰스 디킨스(Charles Hohn Huffam Dicken, 1812~1870년)는 19세기 영국의 소설가로 그의 작품은 성경과 셰익스피어 작품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널리 읽힙니다. 그래서 ‘가장 크고 다양한 세계를 창조한, 셰익스피어 다음으로 가장 위대한 영국 작가’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디킨스에게 어느 날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세상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디킨스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라고 대답했습니다. 문학적 우수함이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부자 관계라는 소재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많은 철학자가 오랜 시간 고민했지만 끝내 답을 찾지 못했던, 인간이 처해 있는 실존과 그들이 겪는 고통의 이유에 대한 진리를 이야기해 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탕자 이야기’는 철학적인 주제를 넘어 허물과 죄 많은 인간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고 있어 깨달음을 넘어 큰 감동을 줍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눅 15:20). 비록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꾸짖기는커녕 그가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는 탕자의 아버지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말씀 나누기	예레미야 4:11~22	
묵상포인트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을 경고하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두려운 심판에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악한 길과 행위를 버리고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완고한 자기 민족으로 인해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느끼며 슬퍼하고 답답해합니다. 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한 선지자입니다. 성도는 심판이 임박한 죄인들을 향한 애타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의 죄악을 끌어안고 애통하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에 임할 두려운 심판을 어떻게 표현하나요?(11~13절)	
적용하기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언제, 어떻게 느꼈나요? 그때 징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이었나요?	
함께 기도하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이 제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 마음을 씻어 주소서. 아직도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한 이들을 판단하기보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밤에 여호와에 집에 섰는 모든 종들이 찬양하라		날짜 : 5월 24일	
찬양		주의 말씀 듣고서 (찬송가 204장 / 통일 찬송가 379장)			
통독		시편 134편			
본문 내용		본시편의 시인은 밤에 여호와와의 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한다(1절). 송축하되 손을 들기까지 열심으로 진실되게 송축할 것을 권면한다(2절). 이런 찬송에 대한 권면 후에 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실 축복에 대해 말한다. 곧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찬송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리신다 는 것이다(3절) .			
생각해보기					
1		여호와 송축에 대한 권면 (1) ‘감사 예배시’에 해당되는 저자 미상의 본시는 제120편부터 시작된 15편의 성전 순례시 중 마지막 시로서 그 배경 또한 알 수 없다. 다만 본시는 대화체 형식을 빌어 작시된 것으로 순례자들과 제사장 및 레위인들간에 교창형식으로 불리어진 듯함 (2) 1,2절은 순례자들이 예배를 위해 밤에 성전을 지키며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찬양을 촉구하는 내용이고 이어 3절은 그에 대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화답을 묘사하는 내용임 (3) 장차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모두 마치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이를때까지 성도들에게는 늘 아름다운 찬양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			
핵심 단어		1절. 밤에. 이스라엘에서 찬양대가 온종일 하나님을 찬양하였음을 보여 준다. 2절. 손을 들고. 상대방에 대한 찬양과 경배, 또는 절대적인 복종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3절. 천지를 지으신. 만물의 복과 저주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포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순수한 마음	날짜 : 5월 21일
찬양	어둔 밤 쉬 되리니 (찬송가 330장 / 통일 찬송가 370장)		
통독	시편 131편		
본문 내용	본시는 다윗이 지은 노래로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겸손을 표현하고 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행치 못할 일을 도모하지 않을 것이며 겸손하게 행할 것임을 고백한다(1절). 이는 하나님의 전능에 비해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젖 떤 아이가 어머니 품에 있듯이 하나님 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하였다(2절). 이러한 고백을 통해 다윗은 하나님께 신뢰한 자가 얻을 평안을 체험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평안은 다윗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권고한 것이다(3절).		
생각해보기			
1	하나님만 바라는 겸손한 자 (1) ‘감사 예배시’로 분류되는 본시는 다윗이 지은 거으로 단 세절로 구성된 짧은 시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마땅히 가질 수밖에 없는 절대 신뢰와 그로 인한 절대 평안이 간결하고도 직설적으로 묘사됨 (2)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면서(1,2절) 본시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자신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만을 의뢰할 것을 권면하고 있음(3절) (3)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한 자는 모든 것을 얻을 뿐만 아니라 마치 갓 젖을 떤 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듯한 만족감과 평온함을 얻게 된다.		
핵심 단어	1절. 큰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과중한 책무를 말한다. 기이한 일. 인간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 수 없는 사건이나 문제를 뜻한다. 2절. 고요하고. 병어리가 아무 소리도 내지 않듯이 아무런 고통이나 슬픔이 없는 평온한 상태를 의미한다. 젖 떤 아이. 인생의 역경 끝에 돌아와 평안을 찾은 다윗의 심리적 상태를 비유하고 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헛된 수고와 하나님의 축복	날짜 : 5월 22일
찬양	샘물과 같은 보혈은 (찬송가 258장 / 통일 찬송가 190장)		
통독	시편 132편		
본문 내용	시인은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간절한 소원을 기억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1-2절). 즉, 다윗은 자신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3절), 잠도 자지 않으며(4절),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세우기까지는 계속 자신의 처소를 위해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고 맹세하였다(5절). 이러한 다윗의 소원은 후에 착착 이루어져 성전에서 경배하는 일과 법궐을 짓은 일과 솔로몬에 의한 완벽한 성전 건축의 기쁨을 보게 되었다(6-9절).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름부음받은 자를 돌보아 주시기를 기도한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다(10-11절).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의 후손에게 영원히 왕위를 주시겠다는 것(12절), 하나님께서 사온을 택하시고 영원히 거기 계시겠다는 것(13-14절), 풍족한 양식을 주시겠다는 것(15절),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하도록 하시겠다는 것(16절), 다윗에게 뿔이 나도록 하시겠다는 것 등이다(17-18절) .		
생각해보기			
1	하나님의 전을 위한 간구 (1) 본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 언약궐을 안치하는 기쁨속에서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며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과 은혜에 대한 감사를 노래함.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의해 불러진 순례자의 노래이며 ‘신정시’(神政詩)로 분류됨 (2) 전반부 1-5절은 옛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서원을 회상하는 부분으로, 여기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다윗의 열심히 애썼는지 잘 나타남. 이어 6-9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궐을 오벰에돔의 집에서 시온으로 옮겨와 그가 예비한 장막에 안치할때의 감격적인 상황을 회상한 것. 8,9절은 대하6:41,42의 성전 봉헌식에서 행한 솔로몬의 기도 내용과 일치함. 끝으로 후반부 10-18절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회상하면서 그 언약들이 반드시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노래함 (3) 영원한 하늘나라의 성전을 향해 순례하며 영원한 왕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핵심 단어	2절. 아굽의 전능자. 아굽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조상으로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총칭하는 명칭으로 사용. 3절. 장막. 근동의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거주지. 낙타나 양 가축으로 만들었으며 이동이 가능하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	날짜 : 5월 23일
찬양	주님 찾아 오셨네(찬송가 534장 / 통일 찬송가 324장)		
통독	시편 133편		
본문 내용	다윗은 이 시에서 형제의 연합을 매우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하여 묘사한다(1절). 크게 두 부분으로 표현을 구분하는데 하나는 '머리 보배로운 기름'과 같다는 것이다(2절). 이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을 때 부은 기름으로 하나님의 성별 제도를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적 사랑에 대한 표현이다. 다윗은 또 다른 한편 형제애를 '혈몬의 이슬'로 표현한다(3절). 이 이슬은 유대 북방에서 남방으로 내려오는 수증기로 인해 생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킨다. 즉 형제애의 유래는 인간에서부터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형제의 연합이다.		
생각해보기			
1	형제간의 연합의 아름다움 (1) 다윗이 지은 것으로 블레셋에 빼앗겼던 언약궐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옴으로 인해 오랫동안 깨어졌던 백성들의 연합이 회복된 기쁨을 노래한 '감사 예배시' (2) 전반부 1절은 형제간의 연합이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를 단언적으로 서술하고 이어 후반부 2,3절은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선민 이스라엘 연합 공동체의 존귀함과 아름다움, 그리고 그들이 최고 지도자에서부터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으로 연합되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음을 대제사장의 성직 수임 때의 기름 붓는 장면과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에 내리는 것에 배유하여 묘사함 (3) 교회속에서 성도간의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하고, 그 연합은 반드시 하나님 중심적일 때 참된 것이 되며 아름다운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핵심 단어	1절. 연합하여 동거함. '함께 거처하다'라는 뜻으로 서로 공동의 사상과 생활 방식을 가지고 운명 공동체로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2절. 흘러서. 차고 넘칠 정도로 풍성함을 의미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